

## 협회 소식

### '주택건설인 송년 리셉션' 개최



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 다이나몬드볼룸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신훈 부회장(금호산업 부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경재용 이사(동문건설 회장), 이상대 이사(삼성물산 사장), 윤문기 이사(신성건설 사장), 김현중 감사(한화건설 사장) 등 협회 임원과 박성표 사장(대한주택보증), 장동규 원장(한국감정원), 이철호 회장(건축사협회), 손정웅 이사장(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기관 기관장,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인 송년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회장은 송년사에서 "2006년도 한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문제로 주택업계만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사회·정치문제가 되었다"고 회고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주택건설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부·학계·시민단체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공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선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새해에도 우리 주택업계에는 많은 어려운 난관이 놓여있으나 지난 IMF의 위기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사의 성장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말로 송년사를 맺었다.

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 다이나몬드볼룸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신훈 부회장(금호산업 부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경재용 이사(동문건설 회장), 이상대 이사(삼성물산 사장), 윤문기 이사(신성건설 사장), 김현중 감사(한화건설 사장) 등 협회 임원과 박성표 사장(대한주택보증), 장동규 원장(한국감정원), 이철호 회장(건축사협회), 손정웅 이사장(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기관 기관장,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인 송년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어 송년사를 마치고 박성표 대한주택보증 사장과 장동규 한국감정원 원장의 건배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은 새해에도 국민주택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식후행사로 가수 이자연씨가 출연해 대표곡인 '불타는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 등을 열창했으며 이후 재즈밴드의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환담을 나눴다.

### 윤오수 상근부회장, '제6회 그린주거문화대상' 시상



윤오수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월 13일 이촌회 건설교통부 차관과 수상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코리어나 호텔에서 열린 '제6회 그린주거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홈네트워크 부문(풍림산업·동문건설), 우수디벨로퍼부문(신영·

드림사이트코리아) 및 아파트 관리 부문(한국주택관리)을 시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그린주거문화대상'은 주거 문화 향상과 주택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헤럴드경제가 주최하고 협회와 건설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GS건설과 월드건설이 영예의 종합 대상을 차지해 건설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문별로는 ▷우수 경영 부문에 대우건설, 한화건설 ▷마케팅 대상에 금호건설, 대한주택공사 ▷고객만족 대상에 현대산업개발, 현일 ▷우수 시공 대상에 동부건설, 신일 ▷우수 조경 대상에 삼성물산, 동보주택 ▷상품개발 대상에 포스코건설, 영조주택 등이 수상했다.

## 회원사 소식

### 대림산업 신임 회장 이용구 씨, 사장 김종인 씨



대림산업은 이용구(60) 대표이사 부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사진 좌측)으로, 김종인 부사장(건축사업본부장)을 대표이사 사장(사진 우측)으로 각각 승진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준용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용구 신임 회장은 연세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1971

년 대림산업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행정부문 부사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1975년 대림산업에 입사해 해외사업본부 이사, 건축사업본부 전무 등을 지냈다.

### 코오롱건설, 새 대표이사에 원현수 부사장



코오롱그룹이 민경조 코오롱건설(주)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달 11일 민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원현수 코오롱건설 부사장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전진 배

치했다. 민 신임 그룹 부회장은 1943년생으로 77년(주)코오롱에 입사한 이래 83년부터 코오롱건설에 근무했으며 99년부터 대표이사로 일했다. 원현수 대표이사는 2003년 임원으로 영입된 이래 2004년 상무, 2005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1년 만에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 고려개발, '사랑의 헌혈 행사'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대표이사 오풍영)은 21일 경기도 안양 사옥에서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려가족,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고려개발 유장현 전무는 "헌혈에 대한 참여 부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개발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이사 지원, 아동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금호건설, 이연구 사장 노숙자 지원 시설 옹달샘 드림인 센터 찾아 어울림가 12호 기증식 가져



지난달 19일 금호건설 이연구 사장 등 어울림 자원봉사단 10여 명이 노숙자 지원시설인 옹달샘 드림인 센터(영등포구 문래동1가 13번지 소재)를 찾아 어울림가 12호 기증식을 가졌다.

금호건설이 지난 4월부터 매월 배식활동 및 식재료비 등을 지원해온

옹달샘 드림인 센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평균 250명의 노숙자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온 단체다. 이날 이연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울림가 12호 기증으로 낙후되고 부족한 숙박 문제가 해결돼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연말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06년 본격적으로 어울림가 기증운동이 전개한 금호건설은 2호부터 12호까지 11호의 어울림가를 탄생시키며 전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 대우건설,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



대우건설 임직원들로 구성된 대우건설사회봉사단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대우건설사회봉사단 50여 명이 참석해 15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이날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기

금으로 구입한 쌀과 200상자의 김치를 서울 중구의 저소득층 150가구와 대우건설 결연 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한편 대우건설 사회봉사단은 매달 중풍·치매 노인 생활시설과 보육시설, 어린이 공부방, 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 시설 개보수와 봉사 활동을 해왔다.

### 롯데건설, 부산 주택문화관 개관



롯데건설(대표이사 이창배)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연제구 거제동 거제역 주변에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물론 연중 다양한 강의로 새로운 지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주택문화관을 11월 25일 개관했다.

건평 1990평 지상 3층의 최신식

건물로 지어지는 롯데캐슬 주택문화관은 크게 주택문화 체험 공간과 함께 문화센터의 문화 공간으로 구분된다. 주택문화 체험 공간인 유비쿼터스관에서는 이동하면서

도 전기나 가스 냉난방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하는 미래형 주택을 만날 수 있으며, 롯데캐슬 문화센터에서는 아동과 성인 대상의 문화교육 강좌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 행사, 각종 문화·예술 협회와 연계하는 전시회,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교육 강좌는 학기별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지며, 롯데캐슬 홈페이지(www.lotteapt.net)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강좌 및 전시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롯데건설 측은 앞으로 롯데캐슬 주택문화관이 부산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미래 주택을 새롭게 체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업 메세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업으로 본 문화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기부 및 문화 행사를 실행할 예정이다.

### 현대건설, '나눔의 떡' 행사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종로구 어르신 점심 대접' '창덕궁 지킴이' '1현장 1이웃' 등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상생과 나눔의 경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창덕궁 쌀과 서산미로 '나눔의 떡'을 만들어 종로 지역 양로원, 복지선교회 등 4곳의 사회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창덕

궁·경복궁 등 5대 궁궐 문화재 관리소 등에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눔의 떡'은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창덕궁 직원들이 함께 모내기하고 추수한 청의정 쌀에 서산미를 섞어 만든 떡으로, 창덕궁 창건 601주년과 현대건설 창립 59주년을 기념해 총 660개의 떡을 제작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대지에 독거노인을 위한 주택을 건립하는 '사랑의 집짓기'에 성금 3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 현대산업개발, 'I'PARK 평면 저작권 300건 돌파



I'PARK의 저작권 등록 신평면이 300건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신평면 개발과 등록을 실시해온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정중)은 올해 55건을 추가로 등록해 평면과 관련해 총 319건에 달하는 저작권을 보유하게 됐다. 올해 개발해 등록된 평면은 30평형

대 이하 23건, 40평형대 17건, 50평형대 이상 15건의 55건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가족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평형대별로 테마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23개 단지의 실태 조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I'PARK 수납 시스템'을 모든 평면에 적용해 주방과 드레스 룸 등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과학적인 수납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00년부터 연평균 50여 건의 저작권 등록을 실시해온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등록으로 평면 관련 319건, 외관 및 색채 관련 12건 등 총 337건에 달하는 저작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평면 개발 연구실 등을 통해 평면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고객 중심의 디자인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